생활주기(life cycle)에 따른 소비성향 및 주거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nsity to Consume and Hous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Life Cycle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전임강사 서 인 주*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석 사 정 지 영**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석 사 한 연 순

Consumer and Housing Dept. Sang Myung University
Instructor Seo, In Joo
Consumer and Housing Dept. Sang Myung University
Master Jung, Ji Young
Consumer and Housing Dept. Sang Myung University
Master Han, Yeon Soo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pensity to consume and hous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life cycle a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t also tries to understand the consumption power and housing style of each cycle and analyz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each life cycle, ultimately aiming to match the propensity to consume and housing style with each cycle. For empirical analysis, on and off-line surveys of 488 peopl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cross analysis, factor analysis

* 주저자: 서인주 (ijseo@smu.ac.kr)
** 교신저자: 정지영 (urdjung@gmail.com)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prim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actor analysis on propensity to consume showed four main sub-factors as rational consumption, conspicuous consumption, trend consumption, and status consumption. Secondly, current and preferred housing styles ranked from modern, natural, casual, classic and romantic, which proved that people are currently housed in preferred housing styles. Thirdly, in case of hous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life cycles, the size of the house increased as the levels progressed, and then decreased at level 6 when the children grew into adulthood.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as paying a monthly rent, a few were leasing, and a very few owned their housing. 58% were living in apartments, but in levels 1-2, more were living in row houses and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s, while in level 6 it was detached houses. Fourthly, the propensity to consume according to life cycle tended to shift from conspicuous and trend-based consumption to rational consumption as the cycles progressed. Fifthly, the preferred housing styles were modern and natural styles, regardless of life cycle.

These study results can be applied to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activities based on their accurate analysis of customers' needs, which can thus bring further customer satisfaction.

Key Words : 소비성향(propensity to consume), 주거스타일(housing style), 주거관련특성(housing characteristics), 생활주기(life cycle)

I. 서론

소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의 개념도 초기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바와는 다르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넘어서 행복, 안락함, 풍부함, 성공, 위세, 권위, 현대성 등의 상징성을 포함하게 되었다(Baudrillard, 1970). 소비가 단순한 사용의 개념을 넘어 포괄적 의미로 쓰이게 되면서 개인 또는 집단의 소비성향은 소비행동 및 소비생활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소비성향이란 소비행동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되며, 소비행동의 특성을 결정짓기 때문에 소비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성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성향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대, 문화 등을 반영한다는 점(김동호, 1995)에서 개인의 1차적 소비환경인 생활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보다 개인이 가족 생활주기 상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Lancing & Kish(1964)의 연구결과(천현진, 이연숙, 2007 재인용)는 소비성향 및 소비자의 선택에 생활주기가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들을 의. 식. 주로 분류하였을 때 의류소비와 식품소비에 비해 주거소비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주거소비는 주택 자체의 소비 이외에도 주거 스타일과 관련된 내구재 소비와 연결되기 때문에(손상희, 2005) 중요한 소비활동이다(정연진, 2007; 박천규, 이수욱, 손경환, 2009; 박천규,

이영,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 스타일과 기존의 소비행동을 연관시켜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소비는 다른 소비재와 달리 투자되는 금액이 높고, 개인의 소비라기보다는 가족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르기보다 가족의 공통된 의견이나 가족이 처한 형편에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개인 상황의 중요한 요인인 생활주기는 주택이나 실내디자인의 선택에 다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주택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를 넘어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주거공간을 사용할 가족이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또는 그 주기의 특성에 맞는 선택이 이루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생활 및 주거소비에 관련한 주거스타일은 개인의 취향이나 충동적인 구매라기보다는 가정의 성립 및 구성원의 성장이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주기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생활주기별 소비성향과 주거 스타일을 파악함으로써 각 주기의 소비성향 및 주거관련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생활주기 단계별 소비성향과 주거관련 특성 및 주거스타일의 특징을 알아보고,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각 주기의 소비성향과 주거관련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생활주기를 단서로 고객의 소비성향이나 주거관련 니즈를 파악하여 고객만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생활주기에 맞는 상품개발이나 마케팅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높여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성향

소비성향은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Lazer(1963)에 의해 마케팅 분야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사회전체 또는 사회 일부분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생활양식이라 정의되었다. 이러한 소비성향은 연구자와 연구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Holt(1995)는 소비의 구조적 특성을 기초로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인간 상호 관계 측면에서 소비성향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즉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느낌이 어떠한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비성향을 보았다. 김동호(1995)는 소비자의 구매동기 및 사용방법과 사용 후 처분방법 등 전반적인 소비활동을 지배하는 심리 및 행동상의 일정한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주위환경, 즉 개인의 문화, 가족 및 소속사회 등의 인적특성의 영향이 소비행동에 반영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치, 태도, 신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며(이정세, 김진섭, 2010),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채서일, 1992 재인용)으로도 정의되었다. 소비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으로 이러한 소비성향은 개개인의 소비행동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은희・남수정, 2004). 이지영・김용숙(1999)은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 구매, 사용, 평가, 그리고 처분하는 과정의 특성으로 구매행동과 소비행동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소비성향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Holt(1995)는 크게 행위의 목적과 구조라는 두 개의 기준으로 2X2 매트릭스로 표현하여 네 가지의 소비패턴을 제시하였다. 즉 '행위의 목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 자체의 목적과 차후목적의 수단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행위의 구조'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비를 중시하는 것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체험자체로서 소비(consuming as experience), 자기 확장으로의 소비(consuming as integration), 사회 유희적 소비(consuming as play), 구별 짓기로서 소비(consuming as classific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비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김동호(1995)는 6개의 하위요인을 추출하였다. 즉 타인이나 체면을 의식하는 사회성, 환경상품을 구입하거나 자원재활용등 환경보호를 고려하는 공익성, 충동적 또는 비계획적으로 구매하는 충동성, 균형 있는 예산지출과 과소비 자제 및 계획성 있는 구매를 하는 합리성, 할인시기에 구매하고 소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효율성, 현재의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향유성 등이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박효원・김용숙(2004)은 신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비성향에 따른 화장품 구매 및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의 요인이 과시성, 공익성, 가치지향성, 경제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은희・남수정(2004)의 청소년대상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으로 지배성 및 상징성이 나타났다. 중국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김용숙, Guolian Liu, Haiyan Wang (2006)의 연구에서는 풍족함 및 유행, 경제 및 실리성, 전통적 미덕, 여가선용, 근검 및 실용성의 5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소비성향을 연구한 이지영・김용숙(1999)의 연구에서는 계획성, 실리성, 쾌락성으로 분류하였다. 강이주・신자빈(2006)의 연구에서는 자원절약, 계획구매, 타인의식, 과시소비로 나타났다.

이상 선행연구의 소비성향의 개념과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을 소비생활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으로 일관성 있는 양식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를 잘 포함하고 있는 김동호(1995), 박효원 외(2004), 강이주 외(2006)의 연구에 사용된 소비성향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소비성향 요인을 추출하였다.

2. 주거 스타일

주거 스타일은 실내공간을 연출하고 꾸미는 하나의 표현 양식으로서 시대적 배경이나 흐름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 다르고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다(정윤혜・신화경 2008). 특히 트렌드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기호에 따라 여가 가지 스타일로 실내를 연출하고 변화시키기도 한다(김재호・김경숙, 2004). 주거 스타일을 표현하는 구성요소로는 바닥, 벽, 천장, 마감재, 가구, 조명. 색채, 소품, 등에 따라 주거 스타일이 표현되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로 구분되기도 한다.

주거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성실, 김원필(2007)의 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실내디자인 스타일 인식 연구에는 주거 스타일을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스타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윤지영, 박영순(1998)은 주거 스타일을 캐주얼, 엘리건트, 모던, 내추럴, 캐주얼, 댄디 스타일로 구분하여 주택의 스타일에 적합한 사례를 통해 스타일을 유형화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거 스타일 분류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클래식, 모던, 내추럴, 캐주얼, 로맨틱의 다섯 가지 주거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클래식 스타일은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의미를 갖으며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신고전주의의 양식을 포함한

〈표 1〉 주거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주거 스타일 분류
박상호(1993)	로맨틱, 내추럴, 엘리건트, 시크, 클래식, 캐주얼, 모던
이진숙, 조원덕(1995)	캐주얼, 로맨틱, 엘리건트, 모던, 클래식, 다이나믹
윤지영, 박영순(1998)	캐주얼, 엘리건트, 모던, 내추럴, 캐주얼, 댄디
김경숙, 이연숙(2004)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
조성실, 김원필(2007)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
김소희, 한영호(2008)	모던, 클래식, 로맨틱, 미니멀, 오리엔탈, 믹스앤매치, 내추럴

다. 즉, 클래식은 옛 유럽의 전통에 바탕을 둔 형식적인 양식을 토대로 한 이미지라 할 수 있다. 모던 스타일은 '현대적', '기능적', '합리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낸 디자인 유형이며 인테리어 이미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컨템퍼러리 모던(Contemporary Modern) 개념에 가깝다. 내추럴 스타일은 '자연의', '자연으로부터의'란 의미를 갖으며 나무, 삼베, 흙, 벽돌 등 자연소재의 따뜻함이 있는 계절감이 주된 요소를 사용한다. 또한, 디자인은 단순하고 소박함과 따스함이 있는 자연적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캐주얼 스타일은 자유롭고 편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단순함이 기본이 되고 기능적, 가벼운 감각디자인 요소가 중심이 된다. 밝은 색조의 나뭇결을 살린 자연스러운 캐주얼, 강철, 유리를 사용한 날카롭고 차가운 느낌의 캐주얼, 가족적이고 상냥한 느낌의 캐주얼 등 그 응용범위가 넓다. 로맨틱 스타일은 부드러운 곡선, 레이스, 깨끗한 화이트 톤, 꽃무늬 등이 로맨틱한 느낌을 표현하는 소재들이 주로 사용되며 여성스러운 손길을 담을 수 있는 스타일로 마음까지 느긋하게 풀어줄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3. 생활주기

1) 생활주기의 개념 및 의의

가족생활주기는 1931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Sorokin, Zimmerman, Galpin에 의해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각 단계에 따라 가족구성, 가치관, 의식, 자원, 역할 등이 달라진다(권동현·이영호, 2007). 생활주기에 대해서 Lansing & Kish(1964)는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보다 그가 생활주기 상 어느 단계에 속해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Duvall(1977) 또한 한 가계가 생활주기 가운데 처한 위치를 알면 소득수준, 소비자행동, 주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여 생활주기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천현진·이연숙, 2007:재인용). 이는 생활주기가 사회현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그 세대를 반영하는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소비생활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도 유용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Coney(1983)는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출생, 성장, 결혼, 사망 등 여러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하는 과정을 가족생활주기라고 하였으며 천현진, 이연숙(2007)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생활주기라고 정의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cycl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주기(life cycle)로 표현하고자 한다. 가족생활주기는 결혼이후의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결혼 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생활주기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가족생활주기를 따르지 않고 결혼 전 단계를 포함한 이유는 최근의

만혼, 독신주의의 증가로 결혼 전 인구가 증가한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2) 생활주기의 단계

개인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가족에도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19세기 말 영국의 경제학자 라운트리(Rowntree)가 주장한 이래로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를 구분하는 관점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2000). 생활주기 단계는 연구의 목적 및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간생활의 중요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확대기와 축소기 2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많게는 24단계까지 나누기도 한다. 가족구성원수의 변천에 따라 구분한 Sorokin(1931)은 신혼부부단계, 자녀양육단계, 자녀가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는 단계, 노인부부만 살아가는 단계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 Duvall(1957)은 신혼부부 가족,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유아기 가족, 아동기 가족, 청년기 가족, 독립기 가족, 중년기 가족, 노년기 가족으로 총 8단계로 분류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많이 적용하는 유영주(1984)의 연구는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결혼기의 총 6단계로 구분하였고 노윤주(1996) 역시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초등교육기, 자녀 중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노인기 등 6단계로 나누었다. 이기춘(1991)은 가족생활주기를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대학 및 자녀 결혼기, 노년기의 6단계로 나누었으며, 권동현・이영호(2007)는 미취학기, 초등교육기, 중·고등 교육기, 성인기 이후의 4단계로 나누었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가족생활주기를 근간으로 하고,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생활주기를 설정하였다. 즉, 최근의 만혼, 독신주의의 증가로 결혼 전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생활주기의 첫 단계에 결혼 전 단계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활주기를 독립기(취업~결혼 전), 형성기(결혼~첫 자녀 출산 전), 자녀 양육기(~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 초등교육기(~첫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 전), 자녀 중고등 교육기(~첫 자녀 대학 입학 전), 자녀 성인기 및 노년기의 6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성향, 주거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비성향, 주거관련 특성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생활주기에 따라 주거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생활주기에 따라 소비성향 및 주거관련 특성은 어떠한가?

2.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업을 했거나 결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의 검증을 위해 2010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1월5일~2월 20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

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 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작위 표집 하여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무작위 표집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응답자 수가 부족한 생활주기단계의 경우 의도적 표집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온라인 288명, 오프라인 200명의 총 488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특성, 생활주기, 소비성향, 주거관련 특성 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여부를 질문하였으며 생활주기는 선행연구(노윤주, 1996; 유영주, 1984; 홍향숙・이기춘, 1989)에서 사용된 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의 사회변화에 맞게 수정하여 총 6단계로 측정하였다. 소비성향은 김동호(1995), 박효원 외(2004), 강이주 외(2006)의 연구를 근거로 수정 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주거관련특성 변수로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 주거스타일을 측정하였다. 주거스타일은 클래식, 모던, 내추럴, 캐주얼, 로맨틱 스타일로 구분하여 현재 주거스타일과 각 주거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의 구체적인 문항 구성 및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기

기존 생활주기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전을 생활주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만혼 및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가족을 형성하지 않고 1인 가구로 살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주관적인 주거스타일에 따라 주거소비가 가능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거의 선택 및 소비가 결혼을 기점으로 시작한다는 것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그 범위를 좀 더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단계를 결혼 전에 취업을 한 상태로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렇게 결혼 전의 경제적인 독립기의 자녀들이 따로 거주하지 않고 노년기의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기도 하여 자녀의 성인기와 노년기가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만혼의 증가로 인하여 모든 자녀가 독립하여 노부부만으로 남게 되는 노년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성인기와 노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어 이 두 단계를 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 단계를 추가하고, 자녀성인기와 노년기를 합쳐서 생활주기를 조절함으로써 <표 2>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2〉 생활주기 단계 정의

단 계	범 위
1단계-독립기	첫 취업 ~ 결혼 전
2단계-형성기	결혼 ~ 첫 자녀 출산 전
3단계-자녀출산 양육기	첫 자녀 출산 ~ 첫 자녀 초교 입학 전
4단계-자녀초등 교육기	첫 자녀 초교 입학 ~ 첫 자녀 중고교 입학 전
5단계-자녀중고등 교육기	첫 자녀 중고교 입학 ~ 첫 자녀 대학 교육 및 취업 전
6단계-자녀성인기 및 노년기	첫 자녀 대학교육 및 취업 ~ 배우자사망

2) 소비성향

소비성향에 대한 문항은 김동호(1995), 박효원 외(2004), 강이주 외(2006)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 후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은 신뢰도 검사결과 크롬바흐 알파값이 0.69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 스타일

주택 디자인 스타일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논문 가운데 주택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대부분의 디자인을 선별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그 개념을 정리한 정윤혜 외(2008)의 논문의 주거 스타일 유형의 다섯 가지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각 개념의 설명은 <표 3>과 같다.

주택 디자인 스타일 선호도는 5점 리커드 척도로 측정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특성, 소비성향, 주거관련 특성 및 주거스타일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위하여 빈도, percent, 평균을 산출하였다. 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스타일의 차이 및 소비성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 요인분석,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분류분석을 이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WIN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주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주기는 <표 4>와 같다.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46%와 54%로 여성응답이 조금 많았으며, 연령대는 40

〈표 3〉 사용한 주거 스타일 및 이미지

주거 스타일	주택 스타일 이미지	이미지
클래식 (Classic Style)	-고전적, 전통적 -신고전주의 양식을 포함	
모던 (Modern Style)	-현대적, 기능적, 합리적'의 의미를 포함 -컨템퍼러리 모던(Contemporary Modern) 개념에 가까움.	
내추럴 (Natural Style)	-자연의, 자연으로부터'의 의미를 포함 -단순하고 소박함	
캐주얼 (Casual Style)	-자유롭고 편안한 이미지를 포함 -다양한 캐주얼 스타일을 갖고 있어 그 응용범위가 넓음	
로맨틱 (Romantic Style)	-부드러운 곡선, 꽃무늬 등 로맨틱한 느낌의 소재사용 -여성스러움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생활주기

(N=488)

항 목			빈 도(%)	
성별	남		226	(46.3)
	여		262	(53.7)
연령대	20대		128	(26.2)
	30대		127	(26.0)
	40대		116	(23.8)
	50대		72	(14.8)
	60대 이상		45	(9.2)
결혼 여부	기혼		378	(77.5)
	미혼		110	(22.5)
직업	회사원		145	(29.7)
	주부		93	(19.1)
	공무원 및 교사, 교수 등		18	(3.7)
	자영업 및 사업		64	(13.1)
	판매 및 서비스직		29	(5.9)
	전문직		81	(16.6)
	기타		58	(11.9)
가족 형태	1인 가구		55	(11.3)
	부부		75	(15.4)
	부부+자녀		299	(61.3)
	부부+자녀+노부모		34	(7.0)
	기타		25	(5.1)
생활주기	1단계	독립기	110	(24.2)
	2단계	형성기	61	(13.4)
	3단계	자녀출산 양육기	68	(15.0)
	4단계	자녀초등 교육기	63	(13.9)
	5단계	자녀중고등 교육기	63	(13.9)
	6단계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	89	(19.6)

대까지는 20%이상의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50대와 60대의 응답자가 각각 15%, 9%로 낮았다. 기혼과 미혼의 비율은 각각 78%와 23%로 기혼자가 많았으며, 생활주기는 주기별로 각각 13~24%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5% 이상이었으며,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61%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의 비율이 22%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11%인 것은 아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미혼자들이 11% 정도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 소비성향의 일반적 경향

1) 소비성향 요인

소비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20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방법으로 회전한 결과 변별력이 없는 1개 문항과, 신뢰도

〈표 5〉 소비성향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명	설문항목	Factor Loading	Eigen Value	분산 (%)	Cronbach's alpha
요인1 합리적 소비	·어떤 물건이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는 편이다.	.78	4.30	23.20	.82
	·쇼핑하기 전에 구입할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대로 구입한다.	.67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 편이다.	.67			
	·값싼 물건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용한다.	.66			
	·물건을 살 때 는 언제나 나의 형편과 처지에 적절한 가를 생각해본다.	.63			
	·물건을 살 때는 여러 상점을 살펴보고 비교한 후 사는 편이다.	.57			
	·주로 할인기간을 이용해 구매하는 편이다.	.56			
	·무엇이든 새것을 사기보다는 쓰던 것을 오래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55			
	·소득수준을 초과하는 소비는 하지 않는 편이다.	.47			
요인2 과시 소비	·남들에게 없는 독특한 물건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려고 한다.	.76	2.63	16.33	.72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즉시사고 싶어 한다.	.73			
	·계획하지 않은 물건도 맘에 들면 구매하는 편이다.	.57			
	·다소 값이 비싸더라도 유명회사의 제품을 쓰는 편이다.	.56			
	·저축보다는 현재를 즐기기 위해 소비하는 편이다.	.55			
요인3 지위 소비	·소유품이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을 짐작하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85	1.20	11.27	.76
	·소비가 그 사람의 지위를 추측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2			
누적 분산			50.80		

가 낮은 요인에 포함된 3개 문항을 제거한 후 총 16개의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표 5>.

요인1은 구매 전 계획을 세우고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지 않는 등 소비자체도 합리적으로 하지만 소득과 소비를 잘 조절하는 성향으로 합리적 소비성향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2는 남들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획이 없더라도 새로운 것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성향으로 과시소비성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3의 경우 소유물에 의해 지위나 사회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여 지위소비성향으로 명명하였다.

2) 소비성향의 일반적인 경향

소비성향의 하위요인으로 밝혀진 합리적 소비, 과시소비, 지위소비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소비성향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났으며, 이는 소비자의 소비능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6〉 소비성향의 일반적 경향

소비성향	평균값 (표준편차)
합리적 소비	3.50 (.56)
과시소비	2.70 (.64)
지위소비	2.84 (.89)

지위소비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소비 또는 소비품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인식이 남아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의 상징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소비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과시소비는 가장 낮게 나타나 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합리적인 소비성향은 가장 높게, 과시소비는 가장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비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 주거관련 특성의 일반적 경향

주거에 관련한 주거관련 특성인 주택소유형태, 주택의 유형, 주택의 규모의 일반적 경향 및 현재의 주거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는 자가의 경우가 58%이며 전세가 28%로 나타났다. 58%의 응답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3%인 111명의 응답자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결과인 아파트 58.3%,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이 71.0%와 유사한 결과이다. 주택규모는 61m^2 이상 132m^2미만의 규모에 67%가 거주하고 있으며 61m2 미만에도 18%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스타일은 모던 스타일과 내추럴 스타일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맨틱 스타일은 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 주거관련 특성 및 현재의 주거스타일

항 목		빈 도 (%)	
주택 소유 형태	자가	283	(58.1)
	전세	134	(27.5)
	월세	44	(9.0)
	기타	26	(5.3)
주택 유형	아파트	284	(58.2)
	단독주택	59	(12.1)
	연립주택(다가구, 다세대)	111	(22.7)
	주상복합	20	(4.1)
	기타	14	(2.9)
주택 규모	61m2 미만	86	(17.6)
	61m2~99m^2 미만	160	(32.8)
	99m2~132m^2미만	167	(34.2)
	132m2~165m^2미만	45	(9.2)
	165m2 이상	30	(6.1)
현재의 주거 스타일	클래식 (Classic)	47	(9.8)
	모던 (Modern)	187	(39.1)
	내추럴 (Natural)	167	(34.9)
	캐주얼 (Casual)	50	(10.5)
	로맨틱 (Romantic)	12	(2.5)
	기타	1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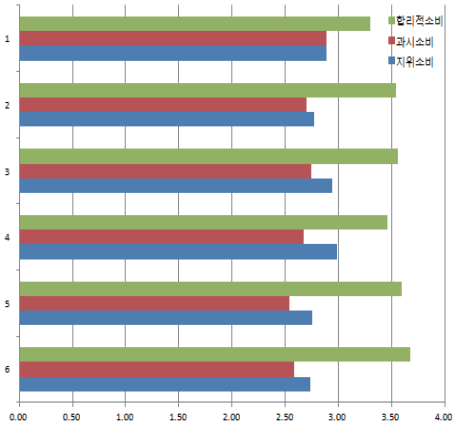
주거 스타일 선호도를 살펴보면 주거스타일 가운데 모던 스타일과 내추럴 스타일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로맨틱 스타일에 대한 선호는 보통(3.0)보다 낮아(2.88)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표 8〉 주거스타일 선호 정도

항 목		평균값 (표준편차)
스타일 선호도	클래식 (Classic)	3.12 (.83)
	모던 (Modern)	3.66 (.78)
	내추럴 (Natural)	3.64 (.76)
	캐주얼 (Casual)	3.11 (.80)
	로맨틱 (Romantic)	2.88 (.91)

〈표 9〉 생활주기별 소비성향

생활 주기	N	합리적 소비 M(SD)/Dun		과시 소비 M(SD)/Dun		지위 소비 M(SD)/Dun
독립기	109	3.30 (.55)	a	2.89 (.67)	b	2.89 (.88)
형성기	61	3.54 (.62)	bc	2.70 (.57)	ab	2.77 (.82)
자녀출산 양육기	68	3.56 (.48)	bc	2.75 (.74)	ab	2.94 (.80)
자녀초등 교육기	63	3.47 (.59)	ab	2.68 (.53)	ab	2.99 (.89)
자녀중고등 교육기	62	3.60 (.51)	bc	2.54 (.60)	a	2.76 (.96)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	89	3.67 (.48)	c	2.59 (.64)	a	2.74 (.91)
F 값		5.40**		3.35**		1.06



** p<.01

이러한 결과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스타일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던 모던과 내추럴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생활주기별 소비성향

생활주기별 소비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유형에 포함된 문항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ANOVA를 수행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지위소비를 제외한 합리적소비와 과시소비는 생활주기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합리적 소비는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립기에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과시소비는 독립기에 가장 높고 자녀중고등교육기와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에 가장 낮게 나타나 합리적 소비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에는 합리적 소비성향을 독립기는 과시소비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생활주기별 주거관련 특성

1) 생활주기별 주거관련 특성

주거관련변수 중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를 생활주기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주택소유형태는 2단계부터 생활주기가 진행될수록 자가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데 이는 2단계가 결혼 이후의 본격적인 독립이 시작되는 초기이므로 상대적으로 자가 비율이 낮고, 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다. 1단계의 경우 미혼으로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 자가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는 가정을 형성하기 전 1인 가구이므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여 월세의 비율이 다른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유형은 생활주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다가 6단계에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단독주택의 거주 율이

〈표 10〉 생활주기별 주거관련 특성

		생활주기					
		독립기	형성기	자녀 출산 양육기	자녀 초등 교육기	자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및 노년기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주택소유	자가	52(47.3)	21(34.4)	29(42.6)	40(63.5)	48(76.2)	98(78.8)
	전세	27(24.5)	30(49.2)	28(41.2)	20(31.7)	13(20.6)	16(13.6)
	월세	20(18.2)	7(11.5)	8(11.8)	1(1.6)	0(0.0)	6(5.1)
	기타	11(10.0)	3(4.9)	3(4.4)	2(3.2)	2(3.2)	3(2.5)
	합계	110(100)	61(100)	68(100)	63(100)	63(100)	118(100)
주택유형	아파트	45(44.1)	35(59.3)	45(67.2)	42(67.7)	45(73.8)	72(58.5)
	단독주택	10(9.8)	2(3.4)	11(16.4)	3(4.8)	7(11.5)	26(21.1)
	연립주택	36(35.3)	19(32.2)	10(14.9)	17(27.4)	9(14.8)	20(16.3)
	주상복합	11(10.8)	3(5.1)	1(1.5)	0(0.0)	0(0.0)	5(4.1)
	합계	102(100)	59(100)	67(100)	62(100)	61(100)	123(100)
주택규모	61m^2미만	29(26.4)	20(32.8)	15(22.1)	9(14.3)	3(4.8)	10(8.1)
	61m^2~99m^2미만	36(32.7)	24(39.3)	37(54.4)	20(31.7)	15(23.8)	25(22.8)
	99m^2~132m^2미만	26(23.6)	17(27.9)	11(16.2)	31(49.2)	23(36.5)	36(48.0)
	132m^2~165m^2미만	12(10.9)	0(0.0)	2(2.9)	2(3.2)	14(22.2)	12(12.2)
	165m^2이상	7(6.4)	0(0.0)	3(4.4)	1(1.6)	8(12.7)	6(8.9)
	합계	110(100)	61(100)	68(100)	63(100)	63(100)	123(100)

높게 나타났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의 연립주택 거주 율이 다른 생활주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상복합 거주 율은 전반적으로 빈도가 낮지만 생활주기 중 1단계인 독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상복합 거주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 전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독립기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고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있는 오피스텔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주기별 거주하고 있는 주택규모를 살펴보면 생활주기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주택규모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10>. 전반적으로는 61~132m^2미만의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단계별로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단계는 99m^2미만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4~6단계는 99m^2이상 165m^2미만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가 초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규모가 큰 주택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녀가 중고교를 입학한 이후인 5단계 및 6단계는 132m^2이상인 규모가 20%이상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2) 생활주기별 주거 스타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스타일을 생활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모던과 내추럴 스타일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표 11>. 형성기인 2단계의 경우 로맨틱스타일이 다른 단계에 비해 선호가 높았는데, 이는 형성기가 결혼 후 자녀출산 전인 신혼기임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신혼집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3-4단계의 경우, 첫 자녀 출산 이후 초등학교시기로 로맨틱스타일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생활주기별 현재 주거스타일

주거 스타일	생활주기					
	독립기	형성기	자녀 출산 양육기	자녀 초등 교육기	자녀 중고등 교육기	자녀 성인기 및 노년기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클래식	15(14.0)	1(0.9)	10(9.3)	3(2.8)	6(5.6)	12(11.2)
모던	36(33.6)	31(29.0)	18(16.8)	25(23.4)	29(27.1)	48(44.9)
내추럴	41(38.3)	13(12.1)	26(24.3)	26(24.3)	19(17.8)	42(39.3)
캐주얼	9(8.4)	10(9.3)	11(10.3)	3(2.8)	4(3.7)	13(12.1)
로맨틱	3(2.8)	5(4.7)	0(0.0)	0(0.0)	2(1.9)	2(1.9)
기타	3(2.8)	1(0.9)	3(2.8)	5(4.7)	2(1.9)	1(0.9)
합계	107(100)	61(100)	68(100)	62(100)	62(100)	11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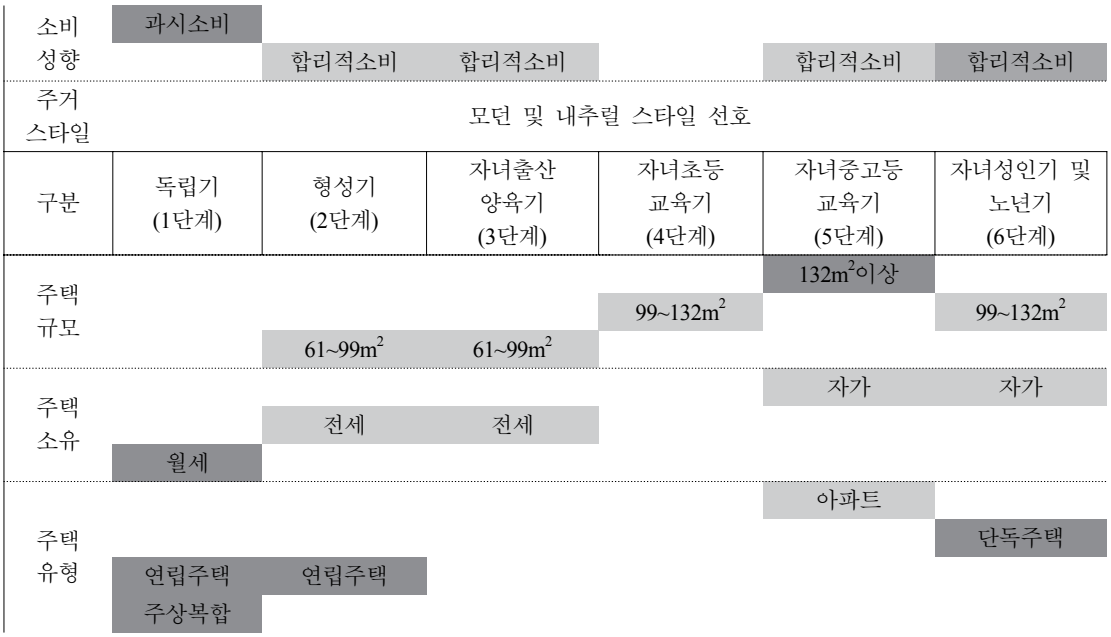
6. 생활주기별 소비성향 및 주거관련 특성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생활주기별 소비성향과 주거특성 및 주거스타일을 보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생활주기 1단계에서의 소비성향은 과시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5-6단계에서 합리적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주기가 1단계에서 6단계로 갈수록 주택소유(자가) 비율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중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가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박천규 외(2009)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주거유형으로는 아파트의 거주비율이 높아지다가 6단계에서 아파트의 주거비율이 조금 감소하고 대신 단독주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규모는 5단계가 가장 큰 규모의 주택

〈그림 1〉 생활주기별 소비성향 및 주거특성 map



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주기에 따른 주거스타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모던 스타일과 내추럴 스타일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 두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성향, 주택특성 및 주거스타일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1단계인 독립기에는 과시소비성향이 다른 주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소유형태는 다른 주기에 비해 월세의 비율이 높고, 주택유형은 연립주택과 주상복합에 다른 주기보다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독립기는 아직 기존 가구에 속해있거나 또는 1인 가구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택규모의 특징은 없었으며, 대신 1인 가구의 경우 규모보다는 편의시설 등이 함께 갖추어진 주상복합의 선호가 다른 주기에 비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단계인 형성기에는 주택규모는 61~99m^{2}가 가장 많고 주택소유형태는 전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의 유형은 연립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는 시기이나 아직 취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작은 규모와 아파트 외의 연립 등의 다른 주택유형역시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 자녀출산 양육기에는 주택규모와 소유형태는 형성기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아직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단계인 자녀초등 교육기에는 주택규모가 99~132m^{2}로 이전단계보다 더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 주거규모가 좀 더 넓어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성향이나 주택유형에는 다른 주기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단계인 5단계, 자녀 중·고등 교육기에는 132m^{2}이상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주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비율이 높아졌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 역시 가장 높다. 이 단계에서의 소비성향은 합리적소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녀 중·고등 교육기는 보통 가구주의 취업기간이 길어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이 1-2단계보다는 적어지므로 좀 더 넓은 규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성장하였으나 아직 독립 전이므로 가장 넓은 규모의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6단계인 자녀성인기 및 노년기의 소비성향은 5단계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주택소유형태 역시 자가가 가장 높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규모는 99~132m^{2}가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많지만 다른 주기에 비하여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6단계의 경우 자녀들이 일부 독립하거나 분가를 하게 되면 규모를 더 넓히려고 하지 않으며 소비성향은 노후를 위한 합리적 소비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거스타일은 생활주기별로 차이가 나타나기보다는 전 주기에 걸쳐 모던과 내추럴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주거스타일은 생활주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보다 현재의 유행 등 다른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느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관련 특성을 주택규모, 주택소유, 주택유형, 주거스타일로 보았으나, 그 외 주거위치나 주택브랜드 선호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 관

련 변수를 포함하였다면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주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소비성향을 독립변수로 주거 스타일을 분석하여 소비성향에 따른 주거스타일을 도출해 낸다면 소비 성향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 스타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성향과 주거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생활주기를 선정하였으나 생활주기 외에 소비성향과 주거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변인을 선정하여 분석한다면 좀 더 정교하게 소비성향과 주거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1) 강이주・신자빈(2006). 소비성향에 따른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결정요인 분석. 소비문화연구, 9(4), 83-103.
2) 권동현・이영호(2007).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환경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 연합회논문집, 29(1), 89-96.
3) 김경숙・이연숙(2004). 현대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주거공간 디자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3(4), 12-20.
4) 김동호(1995). 소비성향 측정도구의 개발 연구-서울시 여성의 소비성향 측정과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5) 김소희・한영호(2008). 실내 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 코디네이트 연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3), 170-173.
6) 김용숙・Guillian Liu, Haiyan Wang(2006). 중국 중년 여성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의복태도와 구매동기. 한국의류사회, 56(2), 45-55.
7) 김재호・김경숙(2004). 현대 실내디자인 스타일 분석을 통한 트렌드 예측에 관한 연구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 10(4), 168-181.
8) 노윤주(1996). 도시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별 소비지출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문숙재・여윤경(2005). 소비트렌드와 마케팅. 서울: 신정
10) 박상호(1993). 색채계획; 건축 인테리어의 색채 이론과 실제. 서울: 효성
11) 박천규・이수욱・손경환(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연구. 국토연구, 60, 171-187.
12) 박천규・이영(2010). 결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18(1), 27-39.
13) 박효원・김용숙(2004). 신세대 여성의 소비성향에 따른 화장품 구매-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54(6), 59-73.
14) 손상희(2005). 집, 삶, 그리고 소비: 소비사회에서의 주거소비문화 분석. 소비문화연구, (4), 163-183.
15) 유영주(1984).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30.
16)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17) 윤지영・박영순(1998). 한국 현대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거실공간에 대한 분석적결과를 토대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6, 116-125.
18)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서울: 교문사.
19) 이은희・남수정(2004). 소비성향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유형별 소비와 용돈관리 실태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57-171.

20) 이정세・김진섭(201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인터넷 소비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15(4), 119-128.
21) 이지영・김용숙(1999).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다른 화장품 소비행동. 한국복식학회, 45, 147-159.
22) 이진숙・조원덕・서정원・이선희・문장수(1995). 실내색채의 이미지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2), 113-120.
23) 정연진(2007). 가족(세대주)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 수요・공급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 32(1), 31-48.
24) 정윤혜・신화경(2008). 대학생이 선호하는 거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거실의 실내색채, 이미지,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7(6), 207-215.
25) 조성실・김원필(2007). 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실내디자인스타일 인식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3), 3-10.
26) 채서일(1992). 체계적 분석의 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연구. 소비자학연구, 35, 46-63.
27) 천현진・이연숙(2007). 도시 근로자가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65-81.
28) 통계청 www.kostat.go.kr
29) 홍향숙・이기춘(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1-14.
30) Baudrillard(1970). 소비의 사회. 이상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31) Duvall, E. M.(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32) Holt, D.B.(1995). How consumers consume: A typology of consumption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 67-75.
33) Lazer, W.(1963).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 A. Greyser(ed.).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34) Michael R. Solomon.(2005). 소비자행동론, 서울: 브레인코리아.

■ 투 고 일 : 2011년 12월 19일
■ 심 사 일 : 2012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2월 7일